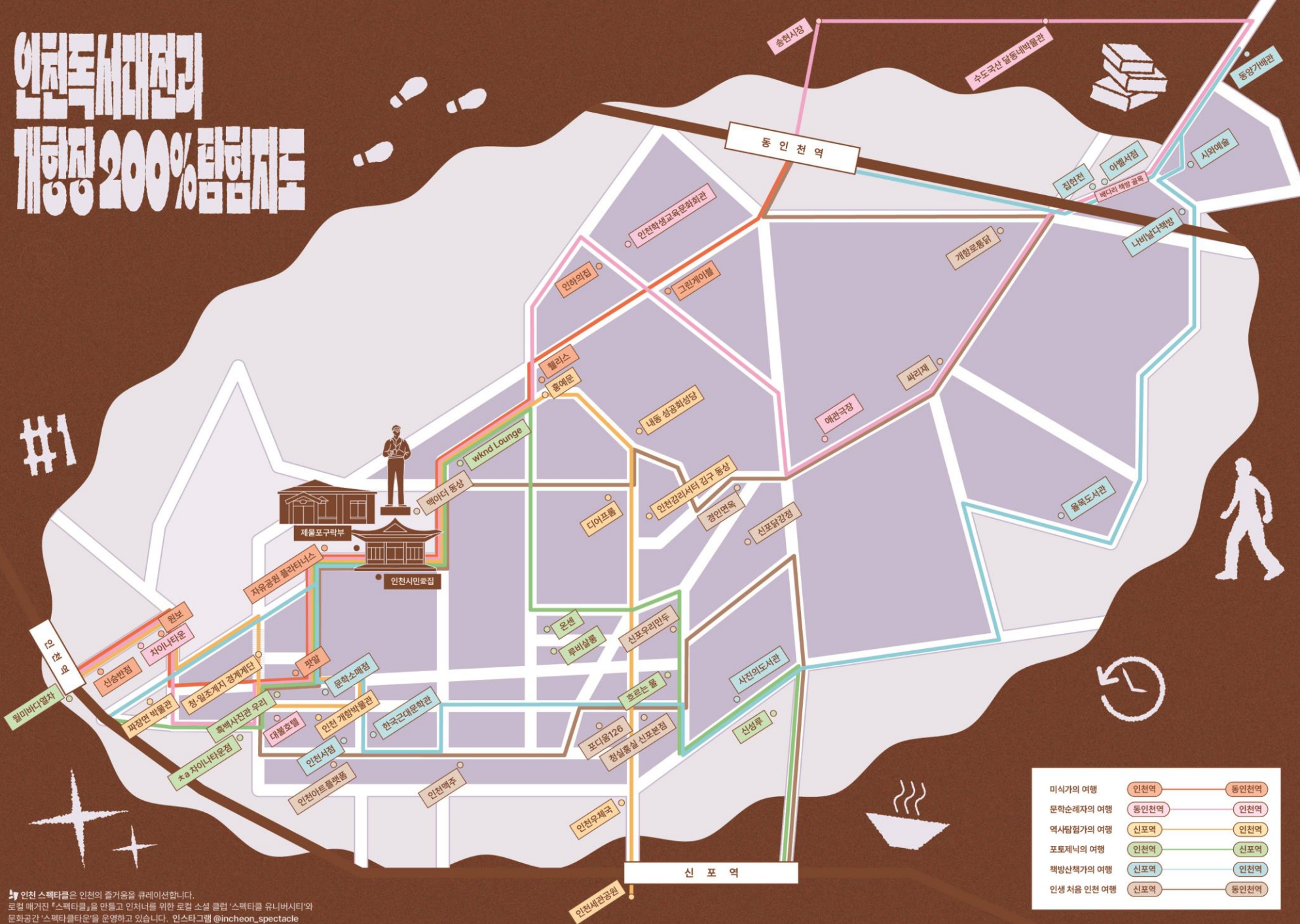


# 인천도시발전의 개항장 200% 탐험지도

#1



미식가의 여행	인천역	동인천역
문학순례자의 여행	동인천역	인천역
역사탐험가의 여행	신포역	인천역
포토제닉의 여행	인천역	신포역
책방산책가의 여행	신포역	인천역
인생 처음 인천 여행	신포역	동인천역

▶ 인천 스펙타클은 인천의 즐거움을 큐레이션합니다.  
로컬 매거진 '스펙타클'을 만들고 인천너를 위한 로컬 소셜 클럽 '스펙타클 유니버시티'와 문화공간 '스펙타클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incheon\_spectacle



# 인천독서대전과 개항지 개항지 200% 개항지 개항지

## 미식가의 여행

☉ 도보 약 30분 소요. 체류시간 미포함

- 인천역 신승반점 원보 맛알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인천시민앰프 제물포구락부  
헬리스 인하의집 그린케이볼 동인천역

개항장 일대는 그야말로 미식가들의 천국. 시작은 인천역 바로 앞에 위치한 짜장면의 발상지 '차이나타운'이다. 초기 공화춘의 계보를 이은 '신승반점'에서 유니짜장 한 그릇, 조금 더 올라가 만두집 '원보'에서 중국식 사오롬바오를 맛보자. 조계지 경계를 지나 일본인들이 살던 거리에 진입하면 1880년대 건물을 그대로 보존한 카페 '맛알'에서 그 시절 방식을 구현한 팥빙수 한 그릇이 기다린다. 소화를 시킬 겸 오르막을 오르면 개항기부터 있었던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가 반기고, 이내 인천독서대전이 열리는 인천시민앰프와 제물포구락부를 만날 수 있다. 책으로 마음의 양식까지 두둑이 채운 후에는 동인천역 방향으로 하산하자. 흥예문 옆 윤치 있는 스페인 식당 '헬리스'에서 양식에 상그리아를 곁들여도 좋고, 조금 더 내려가 정겨운 삼차골목 '인하의집'에서 생선구이에 막걸리를 즐겨도 좋다. 후식으로는 다양한 홍차와 에프터테 티, 스콘을 갖춘 인근의 '그린케이볼' 카페를 추천.

田 동선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다른 옵션  
 심리향(만두), 태화원(중식), 대창번점(중식), 로컬렛(와인), 인천집(삼치), 케이커버스(카페) 등

## 문학순례자의 여행

☉ 도보 약 70분 소요. 체류시간 미포함

- 동인천역 송현시장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배다리 책방 골목 애관극장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인천시민앰프 제물포구락부 대불호텔 차이나타운 인천역

이곳은 수많은 문학 작품의 배경이기도 하다. 동인천역 북광장을 나오면 바로 보이는 '송현시장'은 <괜히부리말 아이들>의 동수기 선생을 사기 위해 들렀던 곳. 시장을 지나 오르는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일대는 김애란 작가가 어릴 적 살던 동네로 <달려라, 아비>의 배경이 되었다. 박경리 작가가 젊은 시절 책방을 운영했다던 '배다리 책방 골목'을 지나 길을 걷다 보면 '애관극장'을 만난다. <변사기담>의 협동사 소속 연사가 된 상상을 해보자. 길을 건너 걸음을 옮기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한 칸에 마련된 인현동 화재 참사 위령비를 발견할 수 있다. <경애의 마음>은 참사를 배경에 둔 김금희 작가의 작품. 자유공원에서 인천독서대전을 즐긴 후 개항장으로 내려오면 <대불호텔의 유령>의 배경이기도 한 대불호텔전사관, 그리고 오정희 작가의 단편소설 <중국인 거리>의 배경이 된 차이나타운을 차례로 둘러며 알찬 문학 여행을 마칠 수 있다.

田 동선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다른 옵션  
 우리미술관(<괜히부리말 아이들>), 화수동 일대(<난강이 쓰아올린 작은 공>), 옛 인천미두원주소 터(<지주회사>), 월미도(<빨강>) 등

## 역사탐험가의 여행

☉ 도보 약 40분 소요. 체류시간 미포함

- 신포역 2번 출구 인천세관공원 인천우체국 인천감리서터 김구 동상 디어프롬 내동 성곽유성당 흥예문  
인천시민앰프 제물포구락부 창일조계지 경계재단 인천개항박물관 짜장면박물관 인천역

개항장 일대는 개항과 함께 시작한 역사의 현장이 가득하다. 세관 창고가 있던 자리에 지어진 '신포역 2번 출구'는 옛 창고 모습을 본따 만들어졌다는 사실 '인천세관공원'을 지나 길을 건너면 일제강점기부터 우편 업무를 담당하던 옛 '인천우체국' 건물이 보인다. 신포동 골목 너머 오르막을 오르면 김구 선생이 투옥되었다는 '인천감리서터와 김구 동상'이 기다린다. 가까이에서 인천의 역사적인 풍경을 담은 열서를 파는 '디어프롬'이 있으니 둘러보자. 우리나라 최초의 성공회 교인인 '내동 성공회성당'도 바로 근처. 발걸음을 옮겨 '흥예문' 위를 걷다 보면 탁 트인 바다가 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인천독서대전이 열리는 인천시민앰프와 제물포구락부를 지나 '창일조계지 경계재단'을 통해 하산하자. 원편으로는 일본풍의 건물, 오른쪽엔 청나라 양식의 건물에서 100여 년 전 거리를 느낄 수 있다. 일본 조계지가 있던 거리에는 '인천개항박물관, 청나라 조계지였던 차이나타운에는 '짜장면박물관' 등 아이들과 함께 들르기 좋은 박물관도 많다.

田 동선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다른 옵션  
 신광미술관, 이윤1977, 인천개항근대건축전시관, 중구생활사전시관, 한중문화관, 삼국지벽화거리 등

## 포드제닉의 여행

☉ 도보 약 40분 소요. 체류시간 미포함

- 인천역 월미바다열차 \*a 차이나타운점 죽백사진과 우리 인천시민앰프 제물포구락부  
wknd Lounge 온센 루비살롱 흐르는 물 신성루 신포역

인천역에서 내려면 '월미바다열차'를 탑승할 수 있는 정거장이 바로 옆. 열차를 타면 바다부터 공작, 공원까지 다양한 뷰를 배경에 두고 월미도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열차에 내려서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a 차이나타운점' 2층에서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뷰를 한 눈에 즐기자. 포드 스캇 투성이인 자유공원에서 인천독서대전까지 즐기고 반대쪽으로 내려가면 전망이 아름다운 카페 'wknd Lounge'를 만날 수 있다. 신포동으로 내려오면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활용해 분위기부터 맛까지 함께 갖춘 '온센'에서 텐동으로 배를 채우고, 맛은 편 '루비살롱'에서 음악과 함께 술 한 잔을 기울이자.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다면 레트로한 LP바 '흐르는 물'에서의 2차를 추천. 집에 그냥 가기 아쉽다면 북고풍의 노포 '신성루'에서 고추장뽕으로 속풀이를 하고 귀가한다면 최고의 마무리.

田 동선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다른 옵션  
 해당화사진관(필름카페와 대어), 아카라커피 본점(카페), 제너틀로 트라토리아(식당), 카페진(카페), 루대이지(카페), 버펄리안(LP바) 등

## 책방산책자의 여행

☉ 도보 약 70분 소요. 체류시간 미포함

- 동인천역 집현전 아벨서점 동양기배관 시와예술 나비날다책방 율곡도서관  
사천의도서관 한국근대문학관 인천서점 문학소매점 인천시민앰프 제물포구락부 인천역

'왜 이 동네에서 인천독서대전 행사를 진행할까?' 하고 궁금했다면, 근처의 수많은 서점과 도서관을 보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향할 곳은 50년대부터 다양한 한책방이 모여 있는 배다리. '집현전'과 '아벨서점'을 비롯한 5곳의 한책방을 취향에 따라 탐험해보자. '동양기배관'에서 커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며 진(진)을 구경하거나, '시와예술'에서 사진집 한 권을 집어들어도 좋다. '나비날다책방'이 자리 잡은 동성문화원도 둘러본 뒤 길을 건너 골목을 걷다 보면 고즈넉한 '율곡도서관' 또한 만날 수 있다. 신홍동의 굵이금이 골목길을 유유자적 지나 신포동 방향으로 향하면 사진 작가가 운영하는 '사천의 도서관'도 기다리고 있다. 이곳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니 방문 시 주의. 본격적으로 개항장 일대에 진입하면 '한국근대문학관', '인천서점', '문학소매점'이 차례로 책방산책을 반긴다. 인천독서대전까지 즐기며 금상첨화.

田 동선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다른 옵션  
 대원서점(종합서점), 책방2도(독립서점), 오갈1호(한책방), 한미서점(한책방), 삼성서점(한책방), 차북카페(북카페), 마루(독립서점) 등

## 인생 처음 인천 여행

☉ 도보 약 60분 소요. 체류시간 미포함

- 신포역 신포유성당 신포유리만두 청실홍실 신포본점 포디움126 인천맥주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시민앰프 제물포구락부 맥아더 동상 경인면옥 싸리재 개항로동탑 동인천역

인천독서대전을 계기로 '인생 첫 인천 여행'에 도전하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이 루트만 충실하게 따라가도 어디 가서 '동인천 가봤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는 맛이 많으니 배를 비울 것. 신포역에서 출발해 '신포유성당', 그리고 '신포유리만두'의 풀면을 맛보자. '청실홍실 신포본점'에서 모밀을 먹을 용량은 남아있어야 한다. '포디움 126'에선 다양한 인천 기념품을 구경할 수 있고, '인천맥주' 양조장에서 이곳만의 맥주를 맛볼 수 있다. 옛 창고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바꾼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전시를 관람한 후엔 인천독서대전 행사를 구경하자. 인천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맥아더 동상'은 잊지 말고 구경할 것. 1940년대부터 이어지는 노포 '경인면옥'에서 평양냉면을 들어오고, 100년 넘는 건물에 자리한 카페 '싸리재'의 카페붕붕 한 잔을 맛본 후에는 '개항로동탑'에서 누룽지동탕과 함께 여정을 마무리하자 추천한다.

田 동선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다른 옵션  
 천누리유성당(유성당), 신홍만두(만두, 공갈빵), 다북집(주점), 국가(중식), 앙골랜드동탄스(경양식), 개항면(혼만) 등

\* 각 공간의 주소 및 연락처, 영업시간은 지도 앱 또는 포털 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행사일과 휴무일 또는 영업 종료 시간이 겹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 도보 이동 시간은 단순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개인 및 기상 상황 등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3 인천독서대전

책, 무한한 세계로의 환대

## 2023 인천독서대전

2023. 9. 22.(금) ~ 9.24.(일)

자유공원 광장, 인천시민앰프, 제물포구락부  
'책, 무한한 세계로의 환대'

주최 인천광역시 후원